

시·도당 위원장 '추대' 상임위 전략적 배치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 소통·결집 ... 정치적 강화해야

뉴스초점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 18곳 선거구를 휩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소통'과 '결집'을 통해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각 지역구마다 특성과 현안 사업이 달라 자칫 불협화음을 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이끌게 될 지역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경쟁보다는 '추대'를 통해 새 인물을 찾고, 상임위원회 배정도 논의 후 지역 특성에 맞게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선자 간 상호 신뢰도 강하지 않아 지역위원장 선거 과정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인기 상임위로 당선자가 불리는 현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위원장 선거부터 화합과 소통을 통해 치르고, 상임위원회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7-8월께 시·도당 지역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당선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당 지역위원장의 경우, 2-3명의 당선자가 자전타전으로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전남도당 지역위원장 경선에 2-3명 가량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예초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경선 없이 당선자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출마자들이 늘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광주시당의 경우, 8명의 당선자 중 이병훈(동남을)·양항자(서구을)·민형배(광산을) 당선자 등이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당도 신정훈(나주·화순)·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가 도당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여수·순천 등지의 당선자들도 "동부권

에서 도당위원장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위원장 인선이 추대보다는 경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의 정치력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거대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신진 정치인들이 결집했던 것과는 달리 초선 당선자의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선 당선자 중심이다 보니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초선 비율은 72.2%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처음 단 초선이 8명(44.4%)인 것과 비교할 때 이 지역의 물갈이 폭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선거 과정에 '의대 유치'를 놓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전남지역 당선자들의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의대 유치가 동·서부권 간 지역 다툼을 치달리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 지역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산 남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이 지역 당선자들이 포진해야 하는데 유독 인기 상임위원회에만 당선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회담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당선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등에 몰려있고, 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명)를 선호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광산업과 인공지능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형일자리(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현안 사업 성공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지역도 농어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외에도 지역 SOC 확충(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위한 상임위 배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지역을 위한 필수 상임위원회에 적절하게 당선자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양항, 선사 2곳 이탈 ... 물동량 '비상'

코로나19 피해 이어 연간 최소 20만 TEU 떨어져 나갈 듯 전문가들 "빠른 회복 어려워 활성화 커녕 꺾일 걱정할 상황"

광양항 주요 선사 2곳이 이달부터 해운 동맹에 신규 가입하면서 연간 최소 20만 TEU의 물동량이 광양항에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만 TEU는 광양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37만 TEU의 8.4%에 해당하는 양으로,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 더해 광양항에 2차 충격을 안기고 있다. 광양항의 지난 1분기(1-3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분기 61만6756TEU보다 10.4% 줄어든 55만2598TEU, 전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7754만6000TEU보다 10.8% 줄어든 6918만TEU에 그치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광양항 주요 선사 가운데 2곳인 SM상선(주)과 현대상선(주)이 이달 1일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에 속하는 2M과

THE Alliance에 각각 가입했다.

SM상선은 신규 가입했고, 현대상선의 경우 최근까지 2M에 속했으나 THE Alliance로 변경 가입했다. 해운동맹은 해운 노선과 선박을 공유하며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연합체로, 두 선사 모두 브랜드·영업력 강화 등 자사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두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으로 광양항 물동량이 장기간, 큰 폭으로 줄어 들게 됐다는 점이다.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22만5885 TEU 가운데 약 10만 TEU가 떨어져 나가 게 됐다. 광양항을 이용했던 물동량 10만 TEU가 2M이 부산항에서 운영하는 미주 항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상선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 기준 24만4060TEU 가운데 약 10만 TEU가

감소할 전망이다. 현대상선이 가입한 THE Alliance가 광양항에서 중동 항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중동 물량 10만 TEU가 날아간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떨어져 나간 물동량은 대체로 환적 물량"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여서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운업 특성상 이른 시일 안에 물동량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광양항 활성화는 커녕 꺾임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부산항이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기점으로 (환적 물동량이 고베 대신 부산항으로 몰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예로 들며, 이탈한 선사(서비스)와 물동량 회복이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이다.

신승식 전남대 물류교통학과 교수는 "광양항이 큰일이다. 코로나로 물동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양항 꺾일까

지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물동량 감소는 정부의 추가 투자 감소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 부산-광양항을 함께 육성하는 투포트(port) 육성 전략이 수정돼 부산항 솔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화물선(물동량) 감소는 선원들 소비 관련 업종, 컨테이너 하역 및 운송업, 금융, 선박 수리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을 불러온다. 전남도와 지역국회원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SM상선(2M)과 현대상선(THE Alliance)의 해운동맹 가입기간이 각각 2025년 1월까지 약 5년, 2027년 4월까지 8년이라는 장기기간이다. 이에 따라 광양항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의해 물동량 창출이 비약적인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는 지점인 '연 300만 TEU 달성'이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청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간의 간담회가 22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각각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와 신뢰회복 최우선"

광주시-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원론적 대안 도출 그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노동계와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대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정치권 등 4자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노동계

가 이를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10명과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노동계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시에 노동계와의 신뢰회복을 우선적으로 주문했으며, 일부

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진주 디큐소셜 '광주 아리랑' ▶9면
KIA 이민우, 유망주 프리표 텐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극 배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